

# “그룹홈 아동 교육 사각지대 해소해야”

###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와 간담회... 학습·정서·자립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필요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전북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호 중심을 넘어 학습과 정서, 자립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4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며 가정형 보호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 지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습결과와 정서불안,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기존의 학교 중심 또는 신청 기반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선별적 지원 구조가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 측은 모든 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성장지원형 장학금 확대, 체험학습비 지원 강화, 교외학습 기회 확대, 맞춤형 학습 지원과 보호자 연계 시스템 구축, 장기적 정서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이 이뤄지는 ‘낙인 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전북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

을 바탕으로 예산과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학력신장 3.0’ 제시

###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학

비 못한 주요 공약과 전북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교육 4주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교육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전북대학교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상근 기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ICC 2026 지능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피지컬AI 중심 첨단 연구 성과, 전북대에서 공유

### ‘Physical AI-X’ 주제로 국방·항공우주·로봇·산업안전 AI 미래 조망

전북대학교 이덕진 교수(첨단모빌리티사업단 단장, 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 소사이어티 회장)가 대외장을 맡아 주관한 ICC 2026 지능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 소사이어티와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 부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국방·항공우주·로봇·자율제조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학술 교류의 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총 12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등 지능정보 및 제어 분야의 대표 학술대회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Robotics Industry Safety AI, MAX(Manufacturing AI-X)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방·항공우주, 로봇, 산업안전, 자율제조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개회식은 남기창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덕진 회장(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 소사이어티)과 송진우 회장(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 부문회)이 공동 개최사를 통해 학술대회의 의의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강연은 소장(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방위산업연구소 소장, 전 방위사업청 청장)이 맡아, 국방·방위산업 분야와 지능정보 제어 기술의 융합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기조강연에서는 권희희 LG넥스윈 스마트정보체계단장이 ‘자율 임무수행 위한 온디바이스 AI 파일럿 개발’을 과수진 한국자율차연구원 본부장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방 AI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흐름을 제시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전북대 첨단모빌리티사업단 홍보부스가 별도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사업단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 발굴과 산·학·연 네트워크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훈 기자

## ESG, 공시·보고서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 ‘AI 시대, ESG의 재정의’ 출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빅데이터 사회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지용승 경영학부 교수가 신간 ‘AI 시대, ESG의 재정의’를 펴냈다.



이번 저서는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공시와 보고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환경 속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ESG를 단순한 평가 지표가 아닌 기업 활동 전반에서 드러나는 데이터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공시 중심 ESG의 한계를 비롯해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ESG 권력 구조,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십 등을 총 2개 장에 걸쳐 다룬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 내 ESG 논쟁 확산 유럽의 규제 강화 흐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 변화도 함께 짚으며 ESG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요소로 분석했다. /오상근 기자

## 전주대, 대학 시 기본교육

### 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차년도 3억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추가 지원까지 최대 6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전교생 대상 AI 기초역량 강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는 전교생 AI 기본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교양·전공·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입생 대상 AI 필수교과와 기초교양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AI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하고, 소단위 전공과 연계한 심화·프로젝트 중심 학습으로 확충하는 구조다.

또한 총장 직속 AI 융합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교수역량 강화·성과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수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공·비전공 교수 간 팀터칭을 통해 융합형 수업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전북교육청, 내달 11일부터 신청접수... 심의 거쳐 9월부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유예 상태인 학생 가운데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제1형 당뇨병,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련 지원을 이어오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난치병 관련 수술 및 의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조한다. 제1형 당뇨병 학생의 경우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 구입 비용도 같은 비

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민간보험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다른 기관 지원 이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학교 또는 도교육청 문예체육건강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중증 지원 여부 확인, 난치병학생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임영근 문예체육건강과장은 “치료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원어민 보조교사 강점 살렸다’

### 도교육청, 글로벌 특화수업 도입

### 방학·학기 말 활용 세계시민교육 확대

### 내달 31일까지 참여 원어민 보조교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어민 보조교사의 강점을 살린 글로벌 특화수업을 도입해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주도하는 ‘세계를 교실로 프로젝트(BTS: Bring The World to School)’를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학기 말 등 교육과정 운영이 비교적 유연한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특화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업은 전통·일상문화를 비롯해 각국의 역사와 주요 인물, 기후와 지속가능성, 가상 여행 등 지리와 세계시민

교육 영역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가 자신의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업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수업은 한국어 교사가 없이 원어민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참여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모집한 뒤 학교별 여건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교사 행정업무 경감 협의체 출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교사 행정업무 경감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 정기·수시 회의를 진행하며, 학교 지원 업무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마련, 성과 점검 등 단계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첫 회의에서는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AI) 음성 기반 부서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원어민 교사와 다문화가정 교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6년 학교업무 경감과 관련된 4개 분야 29개 지원사업을 시정각 자료로 구성해 정책 전달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